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0호 [주제 제25679호] 주제106(2017)년 6월 19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자

오늘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53년전인 주제 53(1964)년 6월 1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진의 계기를 열어놓은 거대한 사변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전체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을 전폭으로 지니신 최세의 천출위인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에 높이 모시으로써 주체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혁과 눈부신 비약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온 나라에 펼쳐지는 우리 당의 높은 존엄과 권위,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약봉하는 기상은 력사의 이념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6월 19일은 당장건립일과 더불어 우리 당건설사업에 길이 빛날 혁명적정열로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날이 되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적당, 백전백승의 당,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로 단결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이 주체의 혁명적당,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것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 탁월한 영도의 당기권결심이며 이것은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빛난다.》

당의 혁명적성격과 본래를 굳건히 고수하고 그 전투적위력과 영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당정전에 못지 않은 중대한 사변이다. 이 성스러운 위업을 탁월한 령도자를 모실 때에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사는 우리 당의 높은 기복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신기로운 모험으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김일성주의를 자주시대의 영봉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빛내이시고 우리 당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적리적으로 굳게 통일 불패의 통일제, 최강성의 전투력으로 다져주시었다. 그처럼 억눌린 시련과 세계적인 대정치풍파 속에서도 우리 당이 사회주의위업을 확고히 실현시키며 주체의 영도방식으로 입신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세상이 들도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는 특출한 공적을 이룩할수 있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과 같이 수령의 사상과 존엄을 옹호하고 수령의 업적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혁명적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

시고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과 조국적천안대비를 담보하는 역년기들을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이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실현된 수령의 당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는 생명선이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당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을 일체화하고 수령의 영도적전위를 절대화하는 것이다.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당건설사상과 리론에서 기본책을 이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령도하신 첫시기부터 독창적인 수령중심의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일관하게 구현해오셨다. 전당김일성주의회의 기치밑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침에 기초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신것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어머니수령을 혁명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추진하시어 당의 중심, 영도의 중심이 확고히 보강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단결 승리와 행동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진체로 다져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고 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우리 당이 최고강령으로 내세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제승이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며 당사업제와 당사업방법도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체계와 방법 그대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이 있기에 우리 당은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혁명적당, 수령의 유산관행을 생명선으로 이어주어나가는 전투적인 당,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존엄높은 당으로 위용될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배속의 포대로 삼고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어나가게 하는 만년초석이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당령의 영도밑에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역력한 의의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의 큰보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뚜렷이

밝히시었으므로 우리 당이 사회주의위업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지평이 마련되게 되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집단의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은 건전히 고수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지키시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제국주의의 악랄한 도전자와 견줄수 없는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항도해올수 있었다.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수호전에서 현전전승을 안아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지금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방식, 무비의 당력과 대담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권태미론의 제재와 봉쇄, 정적군사적압박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면서 력사의 생동기를 과감히 헤쳐나가고있다. 당의 선군정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동방의 백강국, 아시아의 로데트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오고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거대한 발전잠재력이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해나가고있는 오늘에 현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리론의 위대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당건설업적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장창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하는 어머니당으로 존엄면치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오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있어서 인민은 언제나 나 스승이었으며 인민의 의사와 요구는 당의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적기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열렬한 사랑은 한평생 인민원리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신 현저적인 자취마다에도 뜨겁게 어르고있고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변함없이 배부른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에 도울수 있었다. 전당이 민심을 일심단결의 천하지배자로 틀어쥐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용하신 실형은 그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인민의 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절대시해왔으며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은 당을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위주의 사랑을 구현하여 이 땅위에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것은 조선에서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치 세력화하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밀리는것도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고 우리 당의 존재방식과 혁명적당풍도 인민에 대한 열사부하는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도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력정치에 의하여 지금 전당에 인민대중적일주의가 차넘치고 조국방위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면세소리가 높이 울려져나가고 있다.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어머니라는 성스러운 우리 당과 더불어 인민의 영원한 신뢰속에 백승만을 펼쳐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전위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전투적위력이 천백배로 펼쳐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불멸불후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내려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로직들을 발표하시어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전민적으로 심화시켜나가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해나가기 모든 당사업이 장군님의 유산관행대로 확고히 지향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전당의 사업기초와 원수님에게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조선로동당 제 7차 당대회와 비롯한 전당적인 대회들은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을 전천적미정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미화와 그 추종세력들의 말파적공세를 단호히 짓부셔 버린천군민을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다. 민족사적인 후대사변들과 전위위부의 기적적승리, 신화적인 전진속도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 존엄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열매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군정치는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당중앙집권사용위, 당정책집행관들의 함성은 거대한 전폭으로 울려져나가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과 뜻, 발걸음을 함께 하며 혁명의 한걸음도 굽힘없이 끝까지 걸어가 천만군민의 심정은 더욱 굳어져나가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가로 자라나고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활동사상을 직접 체험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가장 숭고한 도덕의 불꽃에서 우리 당이 밀리는것도 오직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영도적역할을 백배로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에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단결체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길에 우리 당의 불배성이 고고한 혁명의 총극적승리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승같은 총정과 고결한 도덕의비범을 지니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로 진행해나가기에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의 귀중성을 실감깊이 새기고 혁명과 건설을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로 진행해나가기에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당사업제와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기에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일적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해인의 예지와 신진정명으로서의 정치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고 영도의 계승체계를 빛나게 해주시신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일대 전환을 위한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당의 명맥을 꿰뚫어 이어놓으시고 양양한 전도를 펼쳐주시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실감깊이 일깨워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는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근본원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위업수행의 유일적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인 당의 통일단결을 철호같이 다지고 당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영도체계를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것은 가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기초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누구나 수령집사용위정신을 단장약하고 혁명의 수호부를 노리는 원수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림으로써 당원들의 높은 존엄과 절대적전위를 백배로 높여야 한다.

당의 영도력과 만리마산구지대회를 향한 전진총력전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기에 한다.

오늘의 전진총력전은 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현수공작전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과 실천력을 힘있게 파시하는 거창한 창조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정신, 강국정신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최고강령강령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맞고자하는 애국정신과 양양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 7차대회 김정일동지께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선봉투사가 되어 전격의 돌파구를 남기지 않게끔 당의 대승을 위한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명적당군의 전투적기초와 불패의 위용을 만반에 떨치며 만리마산대를 선도해나가기에 한다. 당의 믿을만한 최후, 민족부대인 청년들은 정순의 슬기와 용맹으로 새 기록, 새 기준, 새로운 신화를 다발적으로, 만발적으로 창조해나가기에 한다. 전체 인민이 지구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따라오시기, 따라배우기, 정철관한용을 팔방이 펼쳐나감으로써 모두가 로명혁신자, 만리마산투사가 되어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재고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백승같이 계속한 전체적기적당, 당의 결심은 끝 파하고 승리이라는 철리를 실감하여 사업의 결실과 결실한 용호자, 철칙한 관철자로 현존의 준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틀어쥐고나가기에 당사업방법에서 남을 틀어잡고 장군님의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에 한다. 간부들과 당대원을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당생활을 정구화, 규범화하여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그들이 당조직에 의거하여 사업을 세우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로 진행되도록 장악통제하고 제 때에 대책을 세우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크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당사업의 주체는 힘을 인민생활현장에 돌리며 군중과의 사업을 사회사적 전체 인민을 당의 투쟁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근로단체사업 특히 청년층 사업에 대한 지도를 짜고들어 모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키워나간다.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지름길은 초강당과 당세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모든 초강당위업정신을 단장약하고 혁명의 수호부를 노리는 원수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림으로써 당원들의 높은 존엄과 절대적전위를 백배로 높여야 한다.

당의 영도력과 만리마산구지대회를 향한 전진총력전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기에 한다.

오늘의 전진총력전은 당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현수공작전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과 실천력을 힘있게 파시하는 거창한 창조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미국 UPI 통신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에 참석하시어 연설을 하시었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대회에서 연설하시면서 모든 조선소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로 준비시키신것은 현시조선소년단조직들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조국의 귀중한사상과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조선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선로동당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생활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로씨야의 파르틀린,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환구망, 도이쉴랜드단체인인내트롬페제 《현시조선소년단대회에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도 올랐다.

인내트롬페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였다.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였다.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반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내트롬페제들과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백두산제8차조선전선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반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내트롬페제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도 올랐다.

인내트롬페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생활을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사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살에 즈음하여 세스코, 도이쉴랜드에서는 영적도론회가, 인도네시아에서는 파당회가 7월과 8월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중공이 참가하였다.

세스코 제1-모라비공산당 불멸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입니다.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에서 당의 영도체인 수령님의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혁명세력의 군사적위협과 압박을 물리치고 조선의 사회주의와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관건이 수호하시었다.

도이쉴랜드단체인 인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모범 광복승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번철하여 고수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며 승리만을 목숨처럼 수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위한장소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조선인민들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 참다운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인도네시아당중앙 전국지도리사회 총회위원장 겸 총서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영도하시고 전제 인민을 당의 투쟁에 본토의 용이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어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정치자의 빛나는 귀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날에 날라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오늘을 눈부신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어 평화와 인권을 관건이 수호하시었다.

도이쉴랜드단체인 인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모범 광복승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번철하여 고수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며 승리만을 목숨처럼 수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위한장소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조선인민들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 참다운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인도네시아당중앙 전국지도리사회 총회위원장 겸 총서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영도하시고 전제 인민을 당의 투쟁에 본토의 용이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어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정치자의 빛나는 귀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날에 날라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오늘을 눈부신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어 평화와 인권을 관건이 수호하시었다.

도이쉴랜드단체인 인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모범 광복승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번철하여 고수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며 승리만을 목숨처럼 수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생활을 모시고 《조선로동당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이라는 로제로 응근 한면에 걸쳐 특기할 사변이었다.

신문은 1964년 6월 18일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력사적으로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어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파쟁을 기초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혁명세력의 반공화국압박등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뉘앙스》, 《혁명수 없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논증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께서 혁명한 영도밑에 김일성주의를 계승하고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인디안신문 《인디안 월드 이 벤드》는 《조선로동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성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전당의 사상적지적 통일과 단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의의 혁명사상으로 전진하시었다.

그이께서 조선로동당은 사상적순결, 조직적전진, 행동, 통일체로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선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이 향유하시어 인민을 당의 투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고귀한 유산중의 하나이며 당의 영원불변한 전도와 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에스바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 조도 인내트롬페제에 따르면 김일성 동지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 명도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특셈부르그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특셈부르그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미르 메르노우키가, 부위원장으로는 마르 스뻬르가, 서기장으로

샤를레스 도에르네가 선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을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래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주제 53(1964)년 6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반세기이상 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인민의 마음속에는 비범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고귀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천원만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불멸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관생이었습니다.》

주제 53(1964)년 6월 19일, 그날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을 선포한 그날과 더불어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사면적의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날로 력사에 새겨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정일 또 한편의 걸출한 령도자, 백두산장군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었으며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가장 철저히 실현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고 되였다.

불멸의 화폭들이 어려온다. 력사와 인민의 념원에 떠날데려우시어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는 그날은 밤을 꼬박 지새우시고 령명이 밝아오는 새벽까지 나서시였다. 당중앙위원회창설에서 휘날리는 붉은 당기발을 이 령명에 선행하여 인제였다.

침차게 휘날리는 붉은 당기. 그 기발을 경건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창설사상공로가 높이는 당기발은 불바다를 헤쳐와 강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승리와 영광의 기발이여 혁명의 기발이라고 외치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기발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도제국주의동맹을 무서우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하시며 그 때로부터 우리 당의 뿌리가 튼튼히 내

리기 시작하였다고 하시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일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붉은 기발과 함께 걸어온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력사이고, 우리 당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 력사가 그대로 비껴있고 하시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최세의 위인이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경도의 정으로 짙게 울려들었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는, 이것이 나의 평생의 과업입니다. ...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는 첫 기슭에서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또 한편의 백두산장군의 력사의 선언이였다.

숭고한 그의 지휘를 안고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장 수십년간 정력적인 령도와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시는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적로동자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신 것은 그이께서 쌓으신 영원불멸할 업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길에 승리, 혁명의 기발, 혁명의 불로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조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긴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승려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생불변이다》... 불멸의 혁명사상들의 감회깊이여 력히 어려웠던것은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 력과 억척불변의 신념이였다.

비범한 사상적로동자로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100년 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오직 우리 수령님의 존함으로만 부활수 있는 자주적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

은 주체사상당의 통화가 용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세계는 정녕 끝이 없었다.

어느 한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 학사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주체사상당을 고이고있는 대독만큼 펼칠지도 모른다고 하시던 추억같은 표시가 오늘날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넓은 세상을 둘러보아도 당의 창건자, 당의 영원한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추호의 변색도, 탈색도 없이 수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

로동당뿐이다.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이 세기 사상적 통치이야말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였다.

비범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가장 완곡하게 향이놓는다면 주체사상당을 당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무기로 불어넣었다고 하시면서 선언하시였다.

일심단결은 나의 혁명철학이다. ...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관한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중심의 통일단결적 집단사상, 일심단결을 위한 사상을 밝히시고 그를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한것이다.

어머니님!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화발전시키오신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다.

은 나라의 천만민군이 열렬히 칭송하고있는바라 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조선로동당은 이 땅의 천만사수들을 한몸에 안아 피도 슬금도 나누어주고 온몸도 미련도 다 줄어안아주며 바란도 미도 지어 죽을까지도 다 막아나서며 보필한 삶을

어머니님, 우리 인민모두가 뜨거운 격정으로 불러보는 이 소중한 당을 수에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들이 담겨있는것인가.

수십년간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당령도사의 길이를 떠들썩수우우 우리의 당기를 인민의 마음속에 운명의 기발로 세차게 휘날리우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찬열은 고마움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끌어오시며 철저히 구현하시오신 인간철학의 심원한 뜻이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당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사회에 내세워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빛내어주시는것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며 곧 나의 인간철학의 핵심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듯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혁명생애의 나날 실천에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사람들가운데는 혁명가구 《꽃아는 처녀》창조사업에 참가하였던 한 녀성유배부도 있었다.

혁명가구창조사업에 참가하고 그가 공훈배우성호를 수여받은 날이였다. 뜻깊은 그날 혁명가구창조성원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를 몹소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동무가 한때 복잡한 가정주위환경중을 두고 고민하던 동무이였고, 그런 동무가 지난해에는 조선로동당원이 되었고 오늘날은 공훈배우까지 되었다고, 이런 동무들을 안아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내세워주시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고 우리가 하는 혁명이라고 뜨겁게 표시하시였다.

순간 당사자는 물론 장내는 크나큰 격정의 파도로 끓어번지였다. 녀배우의 심정은 불타올라온 안은 뜨거웠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이 되고싶어하면서 복잡한 가정문제도 마음속그늘을 안고있던 심정을 사려깊이 헤아리시어 깊은 삶을 누려가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의 사랑은 슬하의 자식육마음이 풀어안아 보살피는 다정한 어머니사랑이였다.

한없는 그 사랑에 격정이 북받쳐

올라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피에게는 오직 어머니당의 품안에는 없다고 외침을 지치지 아니하시였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여없이 깨끗하고 웅심깊은 전심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로 이런 어머니의 참된 정성으로 입관된 사업가공이 전진에 차던지도록 하시였다.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어머니님, 그 위대한 당을 우리피 한시일은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지치였다.

...

나, 나의 생명의 시작도 부모 그 품에서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높이 치고 땅에 묻히게 하소서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와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이것이 어찌 한 시인의 심정이 라고만 하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인생의 가장 값있는 영광도 행복도 누린 이 나라 인민모두의 긍지높은 세월이 날은 당에 대한 전진적충성가가 아니인가.

그렇다. 어머니당이라는 부름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다함없는 신비, 영원한 입원 단심의 분출이다.

지금도 눈물겹게 어려우나, 어머니당이라는 말은 우리 당중앙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민의 목소리에서 당총비서로서의 긍지를 느낀다고 하시며 온 나라대가를 한몸에 안고서고 부추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사랑과 헌신의 길이.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사랑의 품, 그 사랑의 품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현수령님께서 계시어 어머니당이란 말을 그러도 사랑하시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는 어머니모습으로 빛나는 당기와 더불어 더 높게 떠오르고있다.

한없는 그 사랑에 격정이 북받쳐

인민이 안겨주는 영원한 사랑의 품

본사기자 김인선

붉은 당기폭에 어려오는 위대한 모습

조선혁명의 최고광모부 당중앙위원회창설에서 우리의 붉은 당기가 나뭇길 때로부터 장장 50년! 새 걸음은 모든것을 번모시킨다시 력사의 존엄한 폭풍속에서 우리의 당기가 그 거머잡을 순간도 멈추지 않았던가. 그 붉은 색조가

변한적 있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의 낮과 북이 아로새겨진 막혀있던 만만단혁명분자들에게 단호한 찬수를 내리였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짙 들어한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려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조선로동당기는 력사의 힘찬소리를 넘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였던 것이다.

그후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 15차전원회의에서는 당안에 막혀있던 만만단혁명분자들에게 단호한 찬수를 내리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이 가슴을 부릴 때, 적지 않은 나라들이 그 위압에 굴복할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듯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정치신념을 온 세상에 천명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간직하신 불굴의 신념을 비껴당고 주체의 당기는 자그마한 변색도 없이 붉게 라는 노을마냥 빛을 뿌릴수 있었

물리설수 없는 혁명의 길

본사기자 백영미

《적기가》에 담은 불변의 신념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후 당안에 있던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머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다는것을 포착하시였다.

어느날 새로 만든 기록영화를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각한 안색으로 이 기록영화는 심장이 없는 영화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평양을 소개하는 기록영화에 만장대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없었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으셨다. 빈방안혁명분자들이 머는 책봉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정벌을 단행할것을 결심하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어오시는 길에 혁명가구 《적기가》를 찾으시며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였다.

오직 우리 식대로

해마다 거머되는 미제의 발광적인 침략전쟁승과 날로 로물화되는 우리에게 대한 정치, 경제적압박, 동, 혁명적리력을 꺾어버린 수정주의, 지배주의자들이 작은 나라들에 가하는 비열한 압력과 간섭... 이것이 《41년도바람》과 같은 사나운 화오리바람이 불어치던 1970년대 후반기의 엄혹한 정세였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신념은 변함이 없

20세기 후반기 제국주의에 굴복하여 사회주의나라 당들이 자기의 붉은 기발을 내리우는 비극적사태가 편이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당중앙집행부의 당기발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고 더욱 거세게 펄럭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국권위력으로 사느냐 하는 결사의 그 시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의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이것이 어찌 한 시인의 심정이 라고만 하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인생의 가장 값있는 영광도 행복도 누린 이 나라 인민모두의 긍지높은 세월이 날은 당에 대한 전진적충성가가 아니인가.

그렇다. 어머니당이라는 부름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다함없는 신비, 영원한 입원 단심의 분출이다.

지금도 눈물겹게 어려우나, 어머니당이라는 말은 우리 당중앙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민의 목소리에서 당총비서로서의 긍지를 느낀다고 하시며 온 나라대가를 한몸에 안고서고 부추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사랑과 헌신의 길이.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사랑의 품, 그 사랑의 품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현수령님께서 계시어 어머니당이란 말을 그러도 사랑하시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는 어머니모습으로 빛나는 당기와 더불어 더 높게 떠오르고있다.

한없는 그 사랑에 격정이 북받쳐

본사기자 백영미

본사기자 김인선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의 맹세 굽이친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성스러운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순결한 랑심과 의리로 지키자

영원히 당을 받드는 선봉투사로 살리

오석산화강석광산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세포 당원들

거대한 바위산을 타고앉은 오석산화강석광산은 나라의 손꼽히는 석재생산기지이다. 지난해에 3년분 인민경제계획과 맞먹는 물가불등률을 생산한 광산에서는 올해 뜻깊은 대양절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 활하여 총대진, 총동력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전체 당원, 근로자들과 승결을 같이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오석산화강석광산 로동계급의 앞장에는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세포 당원들이 서있다.

위대 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어려운 고압이 제끼면 때 날면서 기발을 뿜고 나서는 선구자가 되어야 하며 뿜을 출려도 날보다 더 많이 흘리고 짐을 저도 날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며 혁명교업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는 위훈자, 혁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월의 찬바람이 작업반계설의 장문을 흔들고있었다.

당세포위원장 윤경철동무의 얼굴에도, 작업반장 김원국동무의 얼굴에도 굳은 빛이 어려웠다.

당세포위원장 윤경철동무의 얼굴에도, 작업반장 김원국동무의 얼굴에도 굳은 빛이 어려웠다. 새해가 돌아와 진행되는 첫 당세포총회에 참가한 당원들의 심정도 다를 바 없었다.

위대 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리더십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교업을 오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중을 혁명교업수행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 때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누구나 그리하듯이 지난날 한철호동무의 가슴속에도 간절한 소망이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로동당원이 되려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당원들의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서 당정책행철의 줄과를 열어나

라든 당의 크나큰 믿음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진행된 당세포총회에서 당원들은 불같은 심정을 미늘었다.

《당원들의 참된 방심을 담로써가 아니라 원석생산실적으로 보여 주겠습니다.》

당원들의 불같은 열의를 듣고는 당세포위원장이 지리에서 일어났다.

《동무들, 지금 만리마속도가 창조되는 려명기리진실장은 분분호호로 모습을 달리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전투를 벌여 쌓아놓았던 원석들이 눈에 띄게 많아났고있습니다. 오호의 건민총동력전에서 만들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나는 당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작업반이 광산적으로 제일 먼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대양절적으로 끝내자는것을 호소하였다.

《당세포위원장의 호소에 세포당원들이 한결같이 반응해나섰다.》

올해 작업반의 원석생산을 위한 첫 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건은 어려웠다. 엄동설한에 거대한 화강석을 썰어내는 자형식대절기기를 돌려놓는 사실 쉽지 않았다. 한 달밖에 풀이 없고 대절기가 멎어서 곤란하였다.

그날 그들은 주저없이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선봉적전투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기 위한 수명년의 사상과 로선을

옹위한 장선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그들은 암흑의 맹각수를 리용하여 끝끝내 자형식대절기기의 동음을 높이 울리었다. 대절기는 예리한 금속성을 울리며 원석생산의 줄과를 열었다. 광구에는 집체같은 원석들이 흔적지 쌓아졌다. 전에는 볼수 없었던 작업반의 원석생산 실적으로 일꾼들의 두눈이 휘둥그

레졌다. 이복 당세포위원들의 마음속에 서서 겨울이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루리 생산에만 몰두하면서 전장을 뜨지 않은 원석대절기기를 한전성, 김정철, 임혁 동무들을 끌어들여앞에서 강의를 받게 하고 또 마성남동무가 심하게 상하고도 전투에 참가한 사실 등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들려왔다.

과학기술을 앞세움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김병호동무는 자형식대절기기가 썰어놓은 큰돌을 손쉽게 썰는 기발한 방법을 내놓고있었다. 백영남, 백영국, 김명일동무들은 원석생산을 더욱 높이고 작업반원들의 기술기능을 높일것을 단념하지 않았다.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광구 어귀까지 걸어오는 막돌을 뜯어내기도 하고 맞붙어도 그걸을 지 멀리 내다버리는 작업반원들... 《말없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힘차게 힘바를 휘두르며 가락맞게 위우는 선봉진 김경철 동무의 그 말에 작업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시대의 기백을 불태우는 원석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었다. 당원들의 말과 행동이 되고 심정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이 되겠는가.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광구 어귀까지 걸어오는 막돌을 뜯어내기도 하고 맞붙어도 그걸을 지 멀리 내다버리는 작업반원들... 《말없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힘차게 힘바를 휘두르며 가락맞게 위우는 선봉진 김경철 동무의 그 말에 작업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시대의 기백을 불태우는 원석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었다. 당원들의 말과 행동이 되고 심정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이 되겠는가.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광구 어귀까지 걸어오는 막돌을 뜯어내기도 하고 맞붙어도 그걸을 지 멀리 내다버리는 작업반원들... 《말없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힘차게 힘바를 휘두르며 가락맞게 위우는 선봉진 김경철 동무의 그 말에 작업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시대의 기백을 불태우는 원석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었다.

당원들의 말과 행동이 되고 심정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이 되겠는가.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광구 어귀까지 걸어오는 막돌을 뜯어내기도 하고 맞붙어도 그걸을 지 멀리 내다버리는 작업반원들... 《말없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힘차게 힘바를 휘두르며 가락맞게 위우는 선봉진 김경철 동무의 그 말에 작업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시대의 기백을 불태우는 원석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었다. 당원들의 말과 행동이 되고 심정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이 되겠는가.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광구 어귀까지 걸어오는 막돌을 뜯어내기도 하고 맞붙어도 그걸을 지 멀리 내다버리는 작업반원들... 《말없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힘차게 힘바를 휘두르며 가락맞게 위우는 선봉진 김경철 동무의 그 말에 작업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시대의 기백을 불태우는 원석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었다. 당원들의 말과 행동이 되고 심정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이 되겠는가.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광구 어귀까지 걸어오는 막돌을 뜯어내기도 하고 맞붙어도 그걸을 지 멀리 내다버리는 작업반원들... 《말없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힘차게 힘바를 휘두르며 가락맞게 위우는 선봉진 김경철 동무의 그 말에 작업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시대의 기백을 불태우는 원석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었다.

당원들의 말과 행동이 되고 심정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이 되겠는가.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광구 어귀까지 걸어오는 막돌을 뜯어내기도 하고 맞붙어도 그걸을 지 멀리 내다버리는 작업반원들... 《말없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힘차게 힘바를 휘두르며 가락맞게 위우는 선봉진 김경철 동무의 그 말에 작업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시대의 기백을 불태우는 원석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었다. 당원들의 말과 행동이 되고 심정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이 되겠는가.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당원들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광구 어귀까지 걸어오는 막돌을 뜯어내기도 하고 맞붙어도 그걸을 지 멀리 내다버리는 작업반원들... 《말없이 되겠는가, 원석이 되겠는가.》

힘차게 힘바를 휘두르며 가락맞게 위우는 선봉진 김경철 동무의 그 말에 작업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로동당시대의 기백을 불태우는 원석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었다. 당원들의 말과 행동이 되고 심정에 불을 다는 화선선동이 되겠는가. 원석처럼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것이, 이것이 원석2직장 제2작업반 당원들이 가슴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지향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살아가는 작업반장 김원국동무는 온몸을 열수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자형식대절기 매무늬를 리용하여 원석생산 전투의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

재를 들이치고 실험행동으로 작

다. 그러나 그것은 환승간, 마성남, 김인철동무들 비롯한 당원들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다. (대중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런 때 기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결사전 앞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심정에 내린 명령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레대며 힘차게 뛰어났다. 비록 작업반은 동음을 멈추어도 순간순간 전투를 멈출수 없었다.

개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 랑전선탄합사대 시추중대에서

창원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얼마전 우리가 개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 랑전선탄합사대 시추중대를 찾았을 때 직접 목격한 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교업수행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군중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중대장 전성철 동무와 함께 땅속깊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시추중대의 작업현장에 들어섰을 때였다. 습한 기온이 서리고 습기가 가득 차서 배나면서 벌써 공기부리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석탄합사대가 일하는 작업현장을 한눈에 내려다 보면 여느 막강과 다릅니다. 풍동전진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불리한 작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장은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탄전의 최후방선이니까.》

탄전의 최후방, 새삼스러워지는 심정으로 그의 뒤를 따르는 데 별안간 《중대장동무, 또 붕괴중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방 웃던 사람같지 않게 전성철동무가 미합같이 앞으로 달려갔다. 뒤따라가보니 높이가 14m나 되는 거대한 시추기구에 여러 사람들이 서있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려들었다. 《3m 남았습니까.》 《3m 남았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시추공의 목소리는 맥이 빠져있었다. 알고보니 그날이 바로 삼년된 시추굴진계획을 완수하게 되는 날이었다. 이제 3m만 돌파하면 되는데 붕괴층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나섰던 것이다.

시추작업에서 붕괴층과 맞서는 것은 예상사이다. 때일이 같은 앞이나 붕괴층이 나타나서 애를 먹는것이 시추작업인 것이다. 하지만 그날만큼 사정이 달랐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1.4분기 시추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낸 그들이 한발반만큼은 삼년된 시추굴진계획을 끝내자고 결의해나섰던것이다. 그들은 예전에 한사가 새로웠다.

바로 그때 중대장에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철혁, 리기성, 박지삼, 박성일동무들이었다. 김철혁동무가 한걸음 나서며 중대장에게 말했다. 《마지막 3m구간을 우리들이 뚫겠습니다.》

중대장은 미더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인내나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애를 붙들고 있는 그들은 모두 당원들이었다. 《근조소.》

중대장은 단마디로 말하며 그들의 손을 어깨에 잡았다. 눈감찰할 사이에 그들은 전투 자세를 취했다. 콩크리트혼합

물로 붕괴층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누구 하나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세시간은 실히 했을지언만 기운 차게 돌아간 시추기의 동음이 찾아오고 막강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잠시후 《드디어 3m를 돌파했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막강안에 퍼져들려 울려 퍼졌다.

뒤이어 울리는 역설 사나이들의 흥겨운 웃음소리... 그 모습을 정지해 바라보던 중대장이 우리에게 말했다. 《오늘 추풍으로 중대가 삼년된 시추굴진계획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한부들이 또 수십년의 석탄광을 새로 갈고잡게 되겠지요. 깊은 막강이지만 우린 이런 멋에 일하고있답니다.》

우리와 이야기하는 동안 김철혁, 리기성, 박지삼, 박성일동무들이 다음교대준비를 위해 다시 일장을 잡고있었다.

시추장을 벗어나면 갠밖으로 향하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곳 시추중대 당원들과 중대원들의 투쟁의 한 모퉁이에서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수천척지하막강에서 새겨가는 그들의 위훈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위훈장조의 일장에 언제나 서있는 시추중대의 당원들.

우리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땅속에서 새 생명을 빛나는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지하막강의 최후방, 우리 당의 창민 아들들의 모습은 새겨기.

본사기자 리 남 호

두줄기 철길우에 새겨가는 값높은 자욱

사리원기관차대 《붉은기》 53 15호 책임기관사 한철호동무

지난 6월초, 현대의 기관차가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사리원철도역구내를 서서히 빠져나가고있었다. 《붉은기》 53 15호였다.

바로 그 기관차에 책임기관사 한철호동무가 타고있었다. 5월 30일까지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완수한 그에게 기관차의 일꾼들이 며칠 축하하고 전고하였지만 그는 또다시 스스로 어려운 수송임무를 맡아나간다고 머나먼 승무의 길을 떠나가고있었다.

위대 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리더십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교업을 오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중을 혁명교업수행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 때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누구나 그리하듯이 지난날 한철호동무의 가슴속에도 간절한 소망이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로동당원이 되려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당원들의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서 당정책행철의 줄과를 열어나

가는 선봉투사들이었고 당과 수명을 위하여 자기 환골을 다 바쳐 투쟁할 줄 아는 전제배기인 간들이었다.

무슨 일에서나 투진력이 강하고 확신적인 그는 늘 당원들처럼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의 남다른 노력은 기관차로부러 기관사가 된 오늘까지 헤마나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게 하였고 청년동맹초급관리로서로 동맹원들을 잘 이끌어 초급관리로 승진시켜 주었다.

드디어 한철호동무에게도 꿈에도 바라보고마련 영광의 시각이 왔다.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앞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복속까지 싸울 불타는 심장의 맹세를 다지는 그의 눈앞에 세밀한지 어려운것은 당장전 70종정속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분투해나가고 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정에 넋질신 모습이었다.

(아, 나는 얼마나 위대한 시대에 조선로동당원이 되려는 자인가? 만리마선구자대회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내 기어이 만리마속도가 되어 당원의 영예를 빛내이리라.)

그날 저녁 한철호동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철호야, 당원이 되기보다 당원기사를 하기가 더 어렵다. 평범한 기관사의 아들들을 당원으로 키워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보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출발선에 선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

비록 나이가 되어 기관차에서 내려있지만 언제나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오늘도 목욕기 두줄기 궤도우에 한발을 비쳐가는 로동당의 목소리는 보담의 일념으로 불타는 젊은 심판원의 가슴속에 인생의 좌우명을 뚜렷이 새겨주었다. 한철호동무는 어느때보다 두름새금으로 일 하였다.

자기의 기관차를 살리기처럼 어찌 위대한 장군님의 사적이 어린 기관차 《강령 1.5-01》호처럼 만물기 위하여 아슬아슬하게 간직하고 기관차의 실 동물을 높이기 위해 노상 기관차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중증의 기적소리를 울리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여 임당까지 두달만에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완수하였을

때 그 기쁨은 한철호동무에게 감동 잊지 못할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되었다.

그 나날에 한철호동무는 당원은 언제나 보담의 출발선에 서 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인생의 진리를 실생활을 통하여 다시한번 간직으로 체득하였다.

하기에 한철호동무는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당장전기념일까지 2년분 화물수송계획을 완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오늘도 총명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대고조전주장들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의 선봉투사 조선로동당원, 이 성스러운 부름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누가 보진 말걸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행해 성실한 방방을 비쳐가 는 당원이 어찌 한철호동무만 이라.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에 남여남다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함고고 미더운 당원들이 만리마선구자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걸고있고 내 조국은 불초가 다르고 이창과 저녁이 다르게 기적과 변혁을 이루어가게 것이다.

정 영 철

양산장의 세 당원

양산군상수도사업소 로동자들의 김희남, 과성근, 함태원동무들

물리는것은 양수기동공뿐이었다. 그것이 소중한 아기의 숨결이 가라앉아 한쪽 귀를 강구다가는 다시 일손을 잡곤 하는 세 사람, 그들이 바로 파산군상수도사업소 양수공들인 리희남, 과성근, 함태원동무들이었다.

위대 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당과 수명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자진하여 당에 들어오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라.》

세 로동자가 일하는 3호양수장은 10여년전에 내온것이였다. 랑조지에서 리희남동무를 그곳 양수공으로 임명하였을 때 그는 군사복무시절처럼 《일았 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상하수도부문에 서오던 기간 일해오면서 웃음일, 마흔일 가지 없었던 그는 기껏해서 수직 1m밖에 안되고 양수기가 현대본인 크지 않은 일로써 당이 꾸리는 중요한 장소로 맞게 여겼었다.

양수장은 한적한 곳이다. 그곳에서 양수공은 양수기걸을 순간도 떠나서는 안된다.

하부근무간을 훑고 보며내 양수기침비와 수리도 하고 주민들에게 보낼 떡을 정성적으로 싸먹는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한번은 그가 한 기계공장에 부속품을 구하려 간적이 있었다. 횡행 돌아가는 많은 기계실 비탈과 여러 기능공, 기술자들이 한데 모여 일하는 현장의 벽 단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무뎠은 빛이 가득 실렸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동무들은 얼마나 좋겠소.》 부속품배낭을 등에 지며 이런 말을 남긴 그는그리만 양수장에 돌아와서는 머뭇머뭇 무수공들 같이 어깨우에서 양수기에 대고 조종히 숙삭였다.

(양수공 우리가 없다면 년 어떻게 그 정다운 노래를 부르겠소.)

그에게 있어서 양수기동공은 인민들의 생활속에 속속들이 거대한 생명수의 가장 정감도도 아름다운 노래였으며 인민들의 얼굴마다에 맺는 웃음이 고기쁨이었다.

그 동공을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길가에 울린 나사못을 보아도 양수기를 생각하면 불꽃처럼 소중히 간수하였고 양수기에 이상이 생기면 철을 떼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재삼없이 기를 팔을 만났듯 달려나오곤 했다.

3호양수장에서 일하면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파성

군동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어 없어야 사람이 살니까.》

그가 늘 하는 이 말속에 양수공의 공적과 보람이 있고 일터에 바쳐가는 깨끗한 진정성이 있었다.

그날의 흔적이 려력히 남아있던 그 나날 전기사정으로 양수기가 멎어서 곤란하였다. 양수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던 주민들이 양수장에까지 찾아오고 길가에서 양수공들 같이 하고 언젠만 물을 보내주라는 고 안락까지 물을 떠다다 그대는 마치 자기 잘못이거라도 한 듯 아무 말도 못했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 전기공들이 울며 물 을 흘리며 음수기를 휘둘러다 너머 어서 물을 받으라고 단담 데 쓴 사람들을 깨워주는 리희남, 라성근동무들...

인민의 편과 리익을 최우선, 철저시하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빛아래 전기사정으로 양수기가 멎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 양수공들이 할것이라고, 주민들이 다시는 불평을 하지 않게 하자고 떨쳐나선 리희남, 라성근동무들의 불같은 각오와 열정을 몇해전 양수장에 새로 온 제대군관 함태원동무의 노력도 아낌 없이 합쳐지고있다.

파성원들이 기적창조의 주인공으로 저버리지 않았다. 하기에 남정철, 김광옥동무들 비롯한 과학자들과 건설자들은 자라들고 함께 건설장에서 일 할것을 결단 하였다. 그는 당원일꾼이기 전에 평범한 돌격대원이었다.

집에서는 과묵한 그였지만 로동자들과서는 얼마나 마친적이었던지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일하던 건설자들도 초급 당부위원장인 리희남과 인정이 가 담다고 생각하면서 고이 일대로 길어진 병을 안고있는 젊은 미치 않지 못했다.

《방금 기초공사를 끝냈 습니다.》 《쿠호의 굴뚝들이 정중하게 새겨졌습니다.》

바퀴 침상에 있으면도 언제나 마음을 사임소에 넣고있는 그를 위해 로동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올 때면 명마로 컴 컴해있던 얼굴이 금시 밝아지며 침상을 차고일어날듯 힘을 얻곤 하였다.

당과 수명에 대한 총정이 불같은 인간, 언제나 로동자들과 있으면서 승승을 걸었던 당원일꾼, 이것이 그에 대한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하나같은 평가이다.

한계 단위의 사상사업을 책임진 그에게는 일감이 많았고 시

